

글로벌 ICT 현안논의 나선 구현모 ‘5G·AI 중심 포스트 코로나 준비’

GSMA 컨퍼런스콜

마츠 그란리드 사무총장과 현안논의 5G 진가발휘 영역, B2B 시장 강조 “핵심은 ICT 역량, 통신업계 큰 역할”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과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마츠 그란리드 사무총장이 19일 오후(한국시간) 컨퍼런스콜을 통해 글로벌 ICT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콜은 MWC 2020 개최 취소로 인해 구현모 대표가 GSMA와 소통하는 첫 공식적인 장이다.

구 대표와 마츠 총장은 이번 컨퍼런스콜을 통해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ICT 업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와 새로운 기회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 대표와 마츠 총장은 ICT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룰모델이 되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이야기했다. 구현모 대표는 한국 정부의 ICT기반의 ▲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ment)로 이어지는 ‘3T’가 성공요소라고 설명했다.

특히 구 대표는 KT는 2016년부터 정부와 협력해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GEPP)를 론칭해 해외 감염자의 입국 위험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감염병 확산 감소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디지털 역학·추적을 통해 지난 2018년 국내 2차 메르스 발발에서 확진자가 1명으로 그칠 수 있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확진 경로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T가 지난 5월부터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과 협력하는 ICT기반 감염병 확산방지 연구를 통해 글로벌 방역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GSMA를 주축으로 한 글로벌 협력을 요청했다.

구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은 ICT 역량”이라며 “통신업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가 구축한 ICT 인프라와 기술역량으로 다른 산업의 디지털 전환(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는 5세대(5G) 이동통신이 꼽힌다. 구 대표는 5G의 진가가 발휘될 영역은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이라고 강조하며, KT는 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GSMA가 전 세계 통신업계가 5G·AI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현모 대표는 “KT는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다’는 새로운 비전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5G·AI 기반 B2B 디지털 혁신 사례를 더욱 확대해 전통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츠 총장은 “그간 KT가 다양한 영역에서 보여주었던 ICT 서비스 혁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큰 짐도 충분, 첨단기술력 담아 가속 ‘빵빵’

자동차 시승기

쉐보레 ‘2021년형 더 뉴 스파크’

1L SGE 에코텍 가솔린 엔진, 75마력 주행성능·안정성 그대로… 개성 극대화



쉐보레 더 뉴 스파크 레드픽 에디션 & 원더랜드 블루.

/한국지엠



더 뉴 스파크는 미니컬 캠핑에는 충분한 적재 공간을 갖고 있다.

변속기인 C-테크 덕분인데, RPM이 다소 높게 표시되지만 그만큼 연비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관성 주행이 용이해 브레이크를 안밟아도 되고, 변속 충격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서스펜션은 다소 단단한 편으로, 불편하기보다는 안락함에 초점을 맞췄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충격 흡수 설계를 적용한 차체를 부드럽게 지탱해준다.

안전성은 그대로 이어갔다. 8개 에어백과 초고장력 및 고장력 강판 비율 73% 등이다. 전방출동 경고 시스템(FC A)과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DWS)과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SBSA) 등도 장착했다.

혜택도 톡톡히 봤다. 고속도로 통행료 절반 할인 덕분에 부담을 완전히 줄였다. 도심에서는 공영주차장과 혼잡통행료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있었다.

/김재웅 기자 juk@

젊은 세대 생활 방식은 ‘미니멀 라이프’로 대표된다. 작고 실용적인 데 중점을 둔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독특한 디자인을 요구한다.

2021년형으로 돌아온 쉐보레 더 뉴 스파크는 높은 주행 성능과 안정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2021 스파크를 타고 포천으로 미니멀 캠핑을 다녀와왔다. 트렁크 공간은 충분히 활용할만 하다. 해치백이라 텐트와 의자 등 큰 짐들을 충분히 실을 수 있다. 1~2명 동반이라면 2열을 접어 더 많이 활용할 수도 있다.

주행 성능은 이번에도 경차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1L SGE 에코텍 가솔린 엔진으로 최고출력을 75마력밖에 못내지만, 알루미늄 합금을 적용하는 등 GM의 첨단 기술력을 담은 덕분에 힘이 팔린다는 느낌을 쉽게 받지 않았다. 폐달을 강하게 밟으면 충분히 고속도로 제한 속도 이상으로 매끄럽게 가속했다.

스파크의 최고 장점은 스티어링휠이다. 좌측에 ‘시티 모드’를 이용해 스티어링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일반 상태에서는 약간 무게감을 줘 경차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했지만, 시티 모드를 작동하면 가벼운 조향을 가능케 해 조작이 자주 필요한 도심이나 주차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실제 연비는 13~15km/L 수준이다. 공인 복합연비는 15km/L인데, 짐을 많이 실어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무단

SK에너지, 간편 주문·결제 시스템 ‘머핀’ 도입

정비·보험 등 서비스 확대 계획

SK에너지가 보다 간편한 주유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SK에너지는 21일 운전 고객들의 차량관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유소를 기반으로 한 통합 차량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스마트폰 앱인 ‘머핀’을 도입해 원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에너지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22일부터 ‘머핀’ 앱을 설치하면 SK에너지 주유소 200여곳에서 보다 간편하게 주유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다. 연말까지 전국에 있는 SK에너지 주유소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머핀은 서비스명 그대로 기존의 단순한 주유 주문 및 결제 기능에 국한돼 있지 않다. SK에너지는 올해 연말까지 전국 SK에너지 주유소로 서비스를 확대한 이후 세차·주차·발렛파킹 등을 포함



SK에너지 주유소 기반 통합 차량관리 플랫폼 머핀. /SK이노베이션

해 자동차 정비, 보험 등 순차적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머핀은 SK에너지 주유고객들이 사전에 설치한 앱에 차량번호, 주유패턴(유종, 주유량, 금액 등) 및 결제수단을 등록해 놓으면 주유소에서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주유 주문과 결제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구조다. 결제 수단으로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도 사용 가능하다. 고객들이 주유소에 도착해 ‘머핀 주유’라고 주유원에게 알리면 주유원이 차량번호를 조회해 주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LGU+, 언택트 협업 필수기능 통합 서비스

‘U+영상회의’ 출시

LG유플러스는 영상회의, 채팅 등 ‘언택트’ 협업에 필수적인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U+영상회의’ 서비스를 22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U+영상회의는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실시간 영상회의를 진행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포함해 ▲최대 1000명까지 동시접속 지원 ▲회의 녹화 저장 ▲화이트보드 필기 ▲파일 및 동영상 공유 ▲URL을 활용한 간편한 회의 초청 방법 등 원격에서 협업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포함한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사회적 영향으로 온라인 강의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교 대상의 교육용 버전



모델들이 ‘U+영상회의’ 서비스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도 함께 선보인다. 대학에서는 LG유플러스의 교육용 플랫폼을 통해 기존 학생정보, 출결정보, 강의정보를 연동하고, 별도 인프라 운영 없이 실시간 영상회의 기반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U+영상회의를 활용하면 강의 진행 시 교수와 학생 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김나인 기자

“데이터 걱정없이 에듀윌 수강하세요”

KT ‘에듀윌 찐합격팩’ 출시

KT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에듀윌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데이터 걱정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에듀윌 찐합격팩’ 부가서비스와 전용패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에듀윌 찐합격팩 부가서비스는 월 4만 1500원(부가세 포함)이다. KT 홈페 이지와 에듀윌 가입 사이트에서 가입할 수 있고, 별도 약정 및 위약금이 없다.

찐합격팩 이용자에게는 KT의 요금 제별 제공 기본 데이터와 별도로 에듀윌 ‘독한합격앱’ 사용을 위한 데이터 2GB(Gbps)가 매일 제공된다. 전용 데이터 2GB를 모두 소진해도 3MB(Mbps) 속도를 추가로 무제한 제공한다.

찐합격팩은 ‘에듀윌 공무원팩’과 ‘에듀윌 취업팩’ 2종으로 구성된다.

에듀윌 공무원팩은 7,900원(공무원 시험을 위한 행정, 세무, 회계직 등 41개



경기도 분당의 도서관에서 KT 모델들이 ‘에듀윌 찐합격팩’을 이용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KT

직렬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에듀윌 취업팩은 삼성GSAT, SK그룹, 매경 TEST, ERP자격증, 정보처리기기사 등 40여개 대기업과 공기업의 취업과 자격증 컨텐츠를 제공한다.

에듀윌 ‘독한합격 전용패드’는 삼성 갤럭시탭 A 8.0과 동일한 스펙으로, 최대 할인가 월 5만원대에 패드제품과 모바일 기본 제공 데이터 1.6GB(월), 찐합격팩 무제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